법룡사청년회 창립…청년불자들 '포교의 장' 발원

8월 3일, 비구니회관서 창립법회
20·30대 30명 수행정진 발원
광용 스님, 성장하는 모임 당부
선나 스님 "든든한 조력자 될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룡사청년회가 8월 3일 창립법회를 갖고 더 많은 청년불자들의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회를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청년불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법룡사(주지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는 8월 3일 경내 만불전에서 '법룡사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20~30대로 구성된 30여 명의 청년불자들은 도반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청년불자들의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룡사청년회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0여 명의 청년법우들은 부처님 전에 각자 매일 수행전진하겠다는 발원과 함께 '선우회'라는 청년불자 모임을 결성했다. 2024년 3월, 회향을 앞두고 최현묵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청년법우들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고 뜻을 모았지만 인연처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청년불자 양성에 큰 관심을 지닌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만나 법룡사청년회를 창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날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여법하게 창립법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광용 스님은 스스로 밝은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불자들을 격려하고 찬탄했다.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룡사는 전국비구니회관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만 '청년법회가 없네'라는 생각을 하던 중,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어느날 5명의 젊고 참한 청년들을 보내주셨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어 "청년은 미래, 꿈, 희망, 용기, 에너지와 함께 고뇌와 불안 등이 공존하는 존재이지만 걱정 말라"면서 "법룡사가 있고, 부처님 법이 있고, 스승이 있고, 본인들의 불심과 발심이 있으니 충분하다. 우리 함께 부처님 법,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오늘의 환희심을 잘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당부했다.

광용 스님은 임원들에게 임명장 전달과 함께 신행생활에 필요한 보리수로 제작된 108염주와 절다포를 선물로 건냈다. 또 창립축하금을 전달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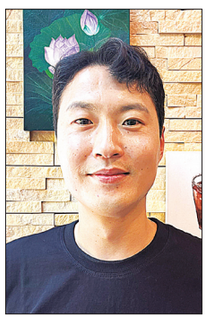
법룡사청년회 지도법사는 선나 스님이 담당하게 됐다. 선나 스님은 어미닭이 병아리가 잘 깨어나도록 껍질을 조금씩 쪼아준다는 '줄탁동시'라는 중국 사자성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도법사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선나 스님은 "의욕적인 청년법우들이 힘껏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돼 응원하고 돕겠다"면서 "신앙과 수행이 겸비된 진정한 불자로 성장하도록 탁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불자들은 불교적 문구를 재미있게 구성, 직접 제작한 단체복을 입고 법회에 참여하는 등 청년만의 톡톡튀는 감성을 표현해 기대감을 높였다. 또 광용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 등에게 만불전 석가모니 부처님과 '힙한' 문구가 새겨넣은 텀블러를 선물하기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청년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장애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미소로 세상을 마주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들은 발원문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인연이 시작되고 나에게 인과가 주어짐을 깨달아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뤄짐을 명심하고 항상 잊지 않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좋은 인연 함께하는 행복한 청년회"

최현묵 법룡사청년회장



법룡사청년회가 창립하는데 선두 역할을 한 최현묵 회장(36, 혜명)은 충주 석종사에서 20여년 간 신행활동을 해왔다. 최 회장은 "7년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마음이 맞는 법우들과 기도모임을 갖고 인근에서 신행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2021년부터 기도모임을 해온 5명을 주축으로 올해 초 내친김에 직접 청년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룡사청년회는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인사업자, 대기업 재직자, 군인 등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절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은 같다.

법룡사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경내에 모여 사경, 불교성전 독송, 지도법사 스님과 대화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맛집 핫플' 방문과 스크린 골프 등 동호회 성격의 활동, 취미생활 공유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 한다. 이밖에도 수계법회와 불교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신행활동 뿐 아니라 대사회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청년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SNS를 최대한 활용해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도 모집한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양식도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함께 토론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묵 회장은 올해 회원 108명 모집을 발원했다. 최 회장은 "내년 연등회에 108명 법우들과 함께 연등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마음의 힐링도 찾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짜임새있는 청년법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혜원 스님 말씀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을"

한마음선원,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


한마음선원은 8월 3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혜원 스님의 영전에 헌화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전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8월 3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다례재를 준비하며 혜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참 용감하셨다'고 기억했다. 스님은 그렇게 우리 대중을 이끌어주셨다"도 술회하고 "혜원 스님이 진정 보고 싶고 그립다면, 스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영상 '마음의 편지'에서는 울산 지원의 법능 이경호 거사가 혜원 스님과의 인연을 전했다. 이 거사는 "처음에는 나 혼자 살겠다고 우리 가족만 살겠다고 선원에 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는 바 없이 베풀 수 있게 됐다. 스님께 받은 큰 사랑을 회향하려고 한다"면서 "스님께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꼭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전 주지 혜원 스님은 1981년 대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7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를 맡아 한마음선원이 도심포교 거점도량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2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8월 21일 법랍 37세 세수 80세로 원적에 들었다.

안양=신중일 기자

화엄사 '템플김밥' 미국·유럽 진출한다

세계 1위 냉동김밥 업체 올곧
'화엄사 유부 우엉김밥' 제작
향후 호주, 남미 등 진출 계획



지리산 화엄사표 '냉동김밥'이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한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냉동김밥 글로벌 1위 기업인 ㈜올곧(대표 최홍국)과 손을 잡고 미국, 유럽 수출을 시작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2023년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급해 품귀현상을 이끌고 있는 ㈜올곧은 한국의 김밥을 글로벌 푸드로 발돋움 시키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이다. 화엄사는 ㈜올곧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K-푸드 열풍을 주도함과 동시에 한국불교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차후 유럽 및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 남미, 아시아까지 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엄사는 "템플 냉동김밥을 시작으로 사찰식 냉동비빔밥 및 만두, 천연 고추장 및 된장 등 화엄사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의 글로벌 제조, 유통을 위해 제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